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3,

프롤로그, 요한복음 1:1-18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션 3, 프롤로그, 요한복음 1:1-18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시리즈의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그 내용과 문학적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서론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의 장을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책의 전체 내용인 John에 관한 약 18개의 비디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비디오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프롤로그에만 사용합니다. 이는 확실히 신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건축가가 멋진 건물의 현관이나 중앙홀을 솜씨 좋게, 아름답게 설계한 것과 비교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John이 자신의 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가 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많은 주제가 여기 서문과 프롤로그에서 전면에서 등장합니다. 잘 디자인된 건물, 입구, 아트리움, 현관은 여러분을 손짓하고 초대하고 집이나 건물 전체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 전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입구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의 서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책의 문학적 기능은 네 번째 복음서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고 독자가 계속해서 읽도록 흥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다양한 핵심 주제와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그것이 그곳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본문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신성한 메시지의 화신으로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수의 선재가 가르쳐지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 예수께서 어떤 의미에서 유대 민족과 논쟁을 벌인 후에 말씀하신 8장에서 말입니다. 이미 그를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의 일부가 되는 예수의 선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묘사된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중에 8장에서 다시 말씀하실 방식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다'입니다. 예수님을 빛과 생명으로 언급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흥미롭고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 프롤로그에서 언급되며, 물론 요한복음 1장 19 절에 이르면 우리는 즉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읽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3장 끝 부분에 꽤 많이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5장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프롤로그의 주요 기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프롤로그 중간에 그가 자신이 만든 세상, 자신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되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마주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책은 본질적으로 그가 그가 만든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가 만든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주제를 전개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영접하고 그를 주님과 구원자로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꿈만 꿀 수 있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읽기 시작하면서, 2장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듣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께서는 제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아버지께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영광을 말하는 방식은 놀라운 일이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롤로그에서 간략하게 나오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요한복음의 전체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그것이 묘사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주제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요한복음에서 어법이 배치되는 방식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매우 눈길을 끄는 방법입니다. 고대에는 chiasm이라는 문학적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chiastic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형용사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어휘, 구조, 사용하는 단어의 측면에서 첫 두 구절을 매우 간단하게 쓴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다. 따라서 헬라어로 된 1절과 2절은 영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 더욱 깔끔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언어 구조를 갖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단어별로 암기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매우 긴밀하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사용하여 내용의 요점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에서 이와 동일한 라인을 따라 John의 전체 프롤로그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복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단순화된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과 빛을 가져온 최초의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다음에 빛이 언급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9절과 10절에서 빛이 세상에 오는 방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빛에서 멀어진다는 사실과 평행을 이룹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미 6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어 있지만 13절과 14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래 창조주이시고 궁극적으로 계시하신 분으로 묘사되는 방식을 흥미롭게 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두 번 언급됩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이 육신이 되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나란히 언급되는 방식이 프롤로그의 핵심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은 프롤로그의 핵심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영접한 자도 있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프롤로그를 구조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의 두 구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롤로그의 주요 부분인 처음 13절에서 그 말씀이 초월적인 창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초월적인 창조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증언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요약を提供합니다. 훨씬 더 간단하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집중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주의 최초의 초월적 창조자인 것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신성한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씀은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와 진리를 가장 크게 계시한 것입니다. 세레 요한의 간증은 앞서 말한 세레 요한의 간증과 마찬가지로 C 프라임입니다. 세레 요한의 간증과 14절부터 18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그곳의 주요 특징으로 언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담론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당신이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당신의 종교적 충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기되는 질문은 14절부터 18절까지가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의 관점에서 처음 13절을 요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환경에서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질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는 모세와 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에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궁극적인 계시자로 볼 것입니까? 그분의 계시는 모세의 계시를 폐지하지 않고 실제로 더하여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기 슬라이드 하단에서 말하는 독자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세레 요한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즉시 작동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분이십니다. 물론, 5장 후반부에는 예수와 예루살렘의 대담자들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논쟁은 모세에 관한

것이며, 그들이 옛날 퀴즈 쇼에서 말하곤 했던 것처럼 진짜 모세가 일어서겠습니까? 모세는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예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고, 모세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삼각측량을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분명히 모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진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충성 자체가 충분했는지, 아니면 모세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롤로그를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왔지만, 그 단어가 누구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의 첫 구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logos)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단어이며, 성경 학자들은 이 단어의 배경과 의미, 요한의 원래 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신학교 학생이었고 인디애나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청소년 그룹과 함께 일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자신의 책을 쓸 때 그리스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요한에 대해 사용할 주일학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로고스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토아 사상에서 아주 사실이며 저는 피타고라스 사상도 믿습니다.

우주는 기본 이론이나 사고, 이성 또는 구조의 표현이며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비인격적인 로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 비인격적인 구조는 세계관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세계 자체의 핵심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철학에서는 이성, 구조, 논리의 원리, 또는 세상의 질서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를 로고스로 묘사함으로써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참으로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는 또 다른 방법과 그것이 청중에게 의미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사상의 일부를 흡수한 유대 문화인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며 헬레니즘 세계관을 더 많이 흡수한 그리스화 또는 헬레니즘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로고스는 일종의 지혜의 의인화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지혜는 매우 단순하고 상호 연관된 주제로 간주되었습니다.

마(hokmah) 가 되는 그리스어 소피아(Sophia)와 연결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이 생각의 대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항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기 위해 잠언 8장과 같은 정경 책과 시라와 같은 외경을 봅니다. 예를 들어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여성적인 존재로 말하면 귀부인 지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시작하실 때 나를 소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나는 땅 의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이 없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산들이 자리잡기 전에,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느니라. 그가 아직 땅과 들과 세상의 흙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세우시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나는 장인으로서 그 옆에 있었다.

나는 항상 그 앞에서 기뻐하며 세상과 그의 땅에서 기뻐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 중 하나로 묘사하는 매우 아름다운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언은 모두 지혜에 관한 것이므로 지혜가 의인화되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로고스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문제는 요한의 저자가 단순히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의인화된 지혜로 본다면 잠언 8장의 언어는 지혜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지혜는 그가 이 속성을 사용하여 세상의 나머지 피조물을 창조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중 첫 번째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를 창조하시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나머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자신의 기독교론의 기초로 사용했다면 그는 그보다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처음 몇 구절에서 그가 말한 바를 고려할 때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일부. 오히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창조의 첫 번째 분이 아니시다.

마찬가지로 집회서(Ecclesiasticus)라고도 불리는 외경인 집회서 1장에는 모든 지혜가 주님에게서 나오며 그분께 영원히 머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지혜에 관해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혜는 창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녀의 미묘함, 누가 알겠습니까? 지혜로우시고 심히 두려울 만한 이가 자기 보좌에 앉으셨으니 곧 여호와께서 그를 창조하셨느니라. 확실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가 피조물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며,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혜에 대한 헬레니즘적 이해가 집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요한의 저자가 이 본문에서 그러한 모티프를 암시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인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예수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즉, 당신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 첫 번째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의해 충족되고 대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이 단순히 로고스를 사용하여 그리스 철학자나 로고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지혜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헬레니즘 유대인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다른 측면을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대착오적인 타나크(Tanak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시대착오적이 아니라, 그냥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 중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토라(Torah)인 타나크(Tanakh)가 있고, 선지자들인 네비임(Nevi'im)이 있고, 기록물인 케투빔(Ketuvim)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나크(Tanakh)라는 단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나크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말하는 방식, 두문자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고 있던 용어인 것 같은데,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와 시편 33장, 이사야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세상이 존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히, 아니, 아니, 아니, 빛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수행적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므로 그의 말씀, 그의 말씀이 세상의 창조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시편 33편은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지음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사하시는 방법은 이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명하시면 굳게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느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는 섭리적인 비로부터 결과를 얻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의 비유를 사용하신 후, 그분은 계속해서 그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갈 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보낸 일이 성공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인화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로고스와 요한의 배경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마도 이것들을 상호 배타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글을 쓸 때 주로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에 대한 이해를 마음의 최전선에 두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로 묘사할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 사람들은 그것을 창세기, 시편 33장, 이사야 55장 및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본문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잠언 8장과 외경의 관련 본문(시라크 등)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관련된 말씀과 지혜에 대해 말한 방식을 사람들이 숙고했다면 요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하나로 묶는 말, 지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것과 반드시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예수가 이 모든 다른 용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 그는 매우 광범위한 청중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려고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질문의 전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워치타워 성서 협회와 그 번역판인 신세계역과 관련된 일부 논쟁의 특정 성서 번역판에서 이 단어가 이해되는 방식을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1장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우리는 즉시 뭔가 신비스러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여기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가 실제로 별개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본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성령과 같은 인격이 아니시지만 그들과 연합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갖고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의 하나의 통일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타워 협회와 신세계역의 이해는 다소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어 본문에서는 예수를 묘사하기 위해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므로 the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성경 번역의 견해입니다. 그리스어로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는 God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를 아주 오랫동안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큰 실수이며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방식에는 일대일 대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망루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예수가 구약에서 일종의 거물 천사, 아마도 미가엘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전 대천사 미가엘은 인간이 되어 창조와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리인으로 내려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18절을 번역하는 방식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작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고 거기서 팔호 안에 작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준 사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신약에서 그리스어 Theos와 관사 ha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설명할 때 g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많이 번역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대문자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름 앞에 the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통 기독교 이해에서 이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자체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3절)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거기서 멈추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한다면,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세계역」의 번역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3절을 다시 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은 그를 통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분 없이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창조되었을 것이고 그분도 피조물 중 하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그 자신은 피조물이셨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며 헬라어 문법은 이 번역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발견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버전에는 라틴어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확장해서 영어 대신 라틴어로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약간의 라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pater filios spiritus sanctus*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듯이 이 세 분 모두는 신, 즉 하나님입니다. *Est*는 단순히 "이다"를 의미하고, *non est*는 "없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위격은 아들의 위격과 구별되고, 성령의 위격도 구별되지만 본성상 세 분은 모두 참으로 신성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인격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도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완전히 발전된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이 예수와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고에 영향을 준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표현으로 가장 잘 설명될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독생자가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거기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가슴'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작은 만이나 단지 움푹 들어간 만이 있는 해안선의 빈 공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아마도 누군가를 안기 위해 팔을 올릴 때 만들어지는 빈 공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계십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1장 1절과 2절에서 그가 의미한 바에 대한 요한 자신의 주석이 될 것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성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 영은 신학자들이 서로의 파라코레틱(parachoretic) 관계라고 부르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파라코레시스(Parachoresis)는 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중 한 사람이 하는 일에 다른 두 사람도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신이 각자의 일을 한다는 삼신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우리의 구속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한 하나님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1장의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 구절과 구약의 관계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으되 예수께서 그를 알리셨음을 말한다.

아버지 곁에 계시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1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1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출애굽기 33장을 읽어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진을 방문하러 돌아올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여전히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이해를 갖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를 준비시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등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것이다. 이제 이것은 흥미로운 개념이 아닌가? 오늘날 구약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등은 물론이고 얼굴도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의인화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대신에 그의 페르소나의 전체 분위기와 아우라를 실제로 포착하는 대신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비유적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바위 틈에 숨기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rav

hesed ve 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멧 . 여기서 요한의 언어는 예수가 xaritos , 은혜 및 aletheia 로 가득 찬 놀이 인종이라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리는 의도적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세가 바라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도 살지도 못하였으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이신 이는 예수시라 아버지에 대하여 알거든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고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당신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시거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 분 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시간을 갖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용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을 살펴보고 더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다른 복음서들이 사물의 물리적인 측면, 즉 체세포의 외적인 형태를 제시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공압적 접근, 영적인 접근, 영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고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기를 갈망하여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고 확실히 구약에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 모세는 확실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나온 것이지 결코 모세를 폄하하거나 율법을 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번역과 많은 주석가들이 말했듯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빴다. 이 본문은 율법이 모세에 의해 왔다고 말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거기에 접속사를 넣지 않고 그냥 빈 채로 두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에 의해 왔습니다 은혜 진리는 예수에 의해 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따라 행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만큼 완전하거나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왔다고 말할 때 ,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매우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더 나쁘게 만들어 예수를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가 더 좋게 보일수록 예수도 더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 크리소스톰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도한 비천함에서 타자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결코 낮추어 자신의 본성을 낮추지 않으시고 늘 치욕과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서문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감사하고 배웠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많은 주제는 나중에 비디오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션 3, 프롤로그,
요한복음 1:1-18입니다.